

‘체육 꿈나무 축제’ 전북 소년체전 25일 ‘팡파르’



지난 16일 전남체육고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전남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수·지도자들이 드론을 활용한 필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전남체육고 제공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되라 대한민국’ 슬로건 4일간 열전

광주, 에어로빅 박혜원·역도 박수현·레슬링 최민범도 도전
전남, 역도 조민재 ‘3관왕 3연패’…수영 김민섭 2관왕 예약



체육 꿈나무들의 축제인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전북 익산 일원에서 열전의 막을 올린다.

올해 48회를 맞는 이번 소년체전은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되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익산종합운동장 등 49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전국 17개 시·도 1만7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소년체전에 광주선수단은 에어로빅 여자중학부 박혜원(월봉중·3년), 역도 여자중학부 박수현(광주체중·3년), 레슬링(그레코로만형) 남자중학부 최민범(광주체중·3년) 등이 금메달에 도

전한다. 박혜원은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있을 만큼 이번 대회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또 자전거 여자중학부 천운영(광주체중·3년)과 양궁 여자중학부 단체전에서도 메달이 유력하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선수단은 지난 해보다 향상된 기량으로 연패와 다관왕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던 단체종목에서의 활약에 따라 광주선수단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5개 종목 1천103명이 참가하는 전남선수단은 금메달 28개를 포함한 총 메달 95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선수단은 역대 어느 해보다도 우수기량을 겸비한 체육영재들이 대거 참가하는 만큼 지난해 성적을 뛰어넘는 선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기록종목(체조, 수영, 역도, 볼리, 육상, 요트)과 단체종목(검도, 배구, 정구,

핸드볼), 투기종목(레슬링, 복싱, 씨름, 유도, 태권도) 등 다수 종목에서 전국 상위권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해라클레스’ 조민재(전남체육중·3년)의 활약상이다.

중학교 1학년때부터 경쟁 선수들보다 10kg 이상 더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려온 조민재는 남자 중등부 56kg급에서 3년 연속 3관왕을 예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김천수영대회에서 대회신기록 작성과 함께 2관왕을 달성했던 ‘점영 기대주’ 김민섭(여수문수중·3년)도 남자중학부 점영 2관왕(점영100m 200m)에 도전한다.

또한 4연패를 노리고 있는 고등동호 정구팀과 체조종목의 나종빈(전남체육중·1년)도 초등 5학년때부터 이어온 안마종목 3연패는 물론 개인종합, 링 종목까지 최소한 2관왕 이상 등극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밖에 담양동호 배구(남초)를 비롯하여 레슬링 김민성(G 55kg) 유송현(F 42kg 이상 전남체육중) 송민섭(G 60kg) 임재혁(G 80kg 이상 함평중), 씨름 임태주(관산초 용장급), 유도 김보경(-57kg) 김수연(-63kg

이상 신흥중), 태권도 김다건(-42kg·시종조) 서영원(-46kg) 정소연(-33kg 이상 해제초), 자전거 나운서(200m기록경기 500m독주경기 빛가람중), 양궁 여초 단체전, 사격 남중 공기관총 단체전 김예슬(여중 공기관총 개인전 함평중), 볼리 어윙진(500m+D 안산중), 볼리 안서형(여중 개인전 구례여중), 요트 박주이(개인전 무선중) 등도 금메달이 유력하다.

오순근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승패보다는 각자 목표로 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 선수들이 아무 사고 없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전북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수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도 “전남체육의 희망이자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가 될 주역인 우리 학생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지금껏 갖고 닦은 기량과 실력을 맘껏 발휘하고 전남대표를 넘어 국가대표라는 큰 꿈을 향해 더욱 더 전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시·도별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메달 및 시·도별 순위를 집계하지 않고 종목별 개인 시상만 진행해오고 있다.

/박희중 기자

여수문수중 김민섭 ‘깜짝 스타’ 수영국가대표선발전 점영 1위

KSF 기준기록 통과…광주세계수영선수권 참가 자격 확보

‘한국 남자 점영의 기대주’ 김민섭(여수 문수중·3년)이 고등학교부터 실업대선배들까지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확보했다.

김민섭은 지난 21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9 수영(경영)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남자부 점영200m에 출전해 1분58초1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로써 김민섭은 대한수영연맹 KSF 기준기록(1분58초38)을 통과함과 동시에 당당히 국가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 수영계의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특히, KSF 기준기록을 통과한 김민섭은 국제수영연맹의 FINA ‘A’ 기준기록(1분56초50)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 대회 점영 3개 종목 중 유일하게 200m에서 KSF 기록을 통과함으로써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할 가능성도 생겼다.

김민섭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까지는 대한수영연맹의 이사회 개최를 통한 출전 자격 부여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FINA ‘A’ 기록을 통과해야 출전할 수 있지만, 대한수영연맹에서 종목별로 FINA ‘A’ 기록에 가장 가까운 KSF 기록을 가진 선수를 내부적인 최종 선발과정을 거쳐 세



김민섭과 안종택 코치.

계선수권에 출전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 점영에서 유일하게 KSF를 통과한 김민섭이 ‘한국 수영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한 박태환 이후 중학생 신분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김민섭을 지도하고 있는 안종택 여수문수중 코치는 “큰 대회 경험이 많지 않은 (김)민섭이가 소년체전을 앞두고 자신감 상승과 멘탈적인 부분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출전한 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해 너무도 대견스럽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민섭은 “지금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 도쿄올림픽 기준기록 통과 및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희중 기자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막내 안세영(광주체고)이 22일 열린 2019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 조별예선 C조 2차전 여자단식 경기에서 세계랭킹 1위 타이프링을 꺾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요넥스 제공

서틀록 차세대 에이스 안세영 여자단식 세계 1위 격파 ‘파란’

한국, 조 1위로 세계혼합단체선수권 8강 진출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막내 안세영(17·광주체고)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타이프링(대만)을 꺾으며 돌풍을 이어갔다.

안세영은 22일 중국 난닝에서 열린 2019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 조별예선 C조 2차전 여자단식 경기에서 타이프링을 2-1(14-21 21-18 21-16)로 꺾었다. 1게임에서 타이프링에게 내내 밀리는 경기를 했던 안세영은 2게임에서 2-0, 7-2로 점수를 벌인 뒤 한 번도 리드를 내주지 않고 승리, 분위기를 뒤집었다.

안세영은 3게임에서는 2-4에서 4-4로 따라잡은 뒤 18-7로 대역전에 성공하며 승리를 따냈다.

혼합단체전은 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5경기를 치러 승수가 많은 국가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세계랭킹 50위인 안세영은 이달 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세계랭킹 11위 장베이원(미국) 등을 꺾고 세계배드민턴연맹(BWF) 투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대회에서는 세계 최강자까지 무너뜨리며 차세대 에이스임을 또 한번 증명했다.

특히 성지현(29·인천국제공항)이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불참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안세영이 완벽하게 채웠다.

안세영의 활약으로 한국은 대만을 3-2로 제압, C조 1위(2승)로 8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전국교수테니스대회 오늘 열전 돌입

전국 84개 대학 1천500여명 참가

조선대가 주관하는 제48회 전국교수 테니스대회가 조선대 경기장 외 광주시 일원 9개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23일 오후 6시 조선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4일에는 개인전 경기가, 25일에는 단체전 경기가 각각 펼쳐진다.

전국교수테니스대회는 오랜 연례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4년제 대

학 교수들의 스포츠 제전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84개 대학에서 개인전 약 600팀, 단체전 150팀 등 1천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특히 광주에서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스포츠를 통해 조선대 및 스포츠 선진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김종민 기자



광주FC 무패 ‘힘 보탠다’

5년간 1억7천여만원 상당 후원

프로축구 광주FC의 후원사인 비타민 하우스가 팀 승격을 위해 추가 후원에 나선다.

광주는 22일 2014년부터 광주 선수단에 비타민, 마그네슘 등 영양제를 후원해오고 있는 비타민하우스가 추가후원을 약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광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12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가는 등 시민들의 승격 염원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광주는 현재 2019 K리그2 개막 후 12경기 동안 7승5무(승점 26점) 무패행진을 달리며 리그 1위에 올라있다. 지난 라운드 창단 이래 최다 무패를 기록했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할 때마다 새 역사를 만들게 된다.

용승재 비타민하우스 이사회의장은 “시민구단 광주에 관심을 가진 이후 승격과 강등, 그리고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왔다”며 “올 시즌은 어느 때보다 선수들의 의지와 투혼이 빛나는 것 같다. 반드시 승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추가 후원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을 연고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인 비타민 하우스는 2014년부터 다양한 영양제를 후원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억7천여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박희중 기자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신임 감독과 선수들이 감독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 명기원 광주시핸드볼협회 전무이사,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 오세일 감독, 오순근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문부흥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도시공사핸드볼팀 새 사령탑에 오세일 감독

전국체전·동계리그 대비 침체된 팀 분위기 전면 쇄신
“기초체력 강화, 뒷심 보강…결과로 증명하겠다” 각오

광주도시공사 여자실업핸드볼팀(이하 핸드볼팀)을 이끌 새 사령탑에 오세일(62) 전 SK호크스 감독이 선임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일 오전 9시 체육회관 회의실에서 오세일 신임 감독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을 수여하고 핸드볼팀이 본격적인 감독 체제로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핸드볼운영위원회는 지난 SK 동계

리그 이후 공석이었던 감독 선임에 위해 여러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지도력을 겸비한 오신임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로 결정했다.

오 신임 감독은 국가대표 출신으로 HC 코로사, 국가대표후보팀, 남자 국가대표팀, SK호크스 등에서 감독을 역임하고 대한핸드볼협회 심판위원장을 거치며 명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지난 동계리그에서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던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으로서는 오 감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침체된 팀 분위기를 쇄신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법도 내놓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전국체전과 동계리그에서 향상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신임 감독은 “선수들이 현재 진행 중인 기초체력 훈련의 강도를 더 높여 부족했던 뒷심을 보강하겠다. 그 이후 전술 훈련을 병행할 것”이라며 “팀 분위기를 일신해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감독으로서의 굳은 의지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